

前・現職의 共存觀

—— 전 창 식 (本誌 논설위원)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책임자가 교체 당했다는 두 사건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불신과 회의에 찬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많은 경우인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의혹을 입은 수사책임자가 경찰이었다는 점이다. 경찰고위관계자는 “로비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의 일기장에서 수사책임자가 일선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고소사건과 관련 지면을 얻게 되어 꿀과 약간의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 있어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책임자를 인사조치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의혹을 입은 책임자는 “내가 없을 때 사업자가 직원에게 억지로 꿀을 맡겨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돈은 다과를 불문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명을 피하기 위한 변명일 수도 있고 사실규명을 통해서 청순한 삶을 이어보겠다는 생존관이기도 하다는 것이 냉혹한 사회의 의견이다. 그러나 비록 아무런 대가성 없는 내용이라도 금품이 거래된 이상은 변명이나 해명이 통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품위와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흠을 입는다.

그리고 보다 처절한 양상은 생존권에 이르기까지 악의 연파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경찰이라는 영역은 특수한 고리로 현직과 전직의 유대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다.

그것은 경찰이라는 전문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재향경우회가 현직을 벗어난 전직임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고 활발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현직이 포기할 수 없는 연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아울러 여기서 착안해야 하는 것이 전·현직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방법이다. 다시는 오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다는 게 양자의 가장 쉽고도 어려운 과정일 것이다. 앞서 예시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책임부서에서 인사조치된 사안은 경찰이기에 당한 특수한 일이다.

이같은 사안의 주의를 비단 현직에서만 요구사항이 아니며 전직에서 오히려 더 유념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현직에서 오류를 범했을 때 사회의 지탄여론과 멸시는 전직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전직의 몰식(沒識)은 현직의 행동반경에 적지 않은 장애요인을 안겨준다.

우리는, 서로가 조심할 때 서로가 이룬다라는 공생(共生)의 조건(條件) 가운데 한 구절을 기억한다. 탐하지 말고, 청렴하게 심상을 유지할 때 비로소,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우리가 항상 전·현직을 통해서 가슴 깊이 지니고 있는 격언이다. 경찰이기에, 또한 이었기에 우리는 생활행동에 남다른 제약과 고통을 더한다는 게 사실이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설계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窓邊> 에세이



濟愼 金 今 道 (중앙회 부회장)

孟子的 公孫丑 上에 나오는 문장이다. 여기에 원문을 옮기지는 않지만 그 뜻은 맹자 왈 “화살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여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不仁 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만 화살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상할까 봐 걱정한다. 巫堂과 匠人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기술의 선택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구절에 ‘反求諸己而已矣’로 끝을 맺는다. 중략하고 마지막 구절의 뜻은 “화살이 파녀에 맞지 않으면 자기를 이긴 자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파녀에 맞지 않은 까닭을)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찾는다.”라는 것이다.(성공회 대학교 사회과학부 송영복 교수의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

나는 이 글을 통해서 몇 년 전에 천주교 단에서 전개하던 “내 탓이요”하던 운동을 연상해 본다. 사실 그렇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서 자기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지 않았던가? 우리가 다반사로 쓰는 ‘잘된 것은 자기 탓이요, 잘못된 것은 조상 탓’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反求諸己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잘못에 직면하여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기 보다는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다. 국가시책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떠넘기기식 또는 다른 부처의 탓이라 하여 논쟁을 벌이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또 국민들이 식상해 한다.

反 求 諸 己

그 좋은 예가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관련 소송,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이나 사업 변경을 하라는 판결 등이다. 관련기관, 이해 관련 단체가 서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대책 없이 밀어 붙이기로 모두가 내 탓이 아니라 하여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지 않은가.

그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와 TV토론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할 일이다. 따라서 反求諸己는 나를, 내부를, 우리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원인은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이든 국가이든 자기반성위에서 만이 올바른 토대를 구축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쉽게는 가정관리, 그리고 사회생활 등에 있어서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기 탓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대개는 학교 선생이 잘못 지도해서 그렇다고 하거나, 상대방의 아이의 잘못이라고 야단치며 남을 탓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이제는 “내 탓이다”라는 생각을 먼저하고, 왜 왕따를 당하는가? 왕따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노력하는 것을 학습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모든 잘못된 관습이나 풍조가 ‘내 탓이오!’ 라는 생각에 접근하는 인식이 퍼져 나갈 때 이 사회가 한결 더 밝아지지 않겠는가?

최근 어느 고위재판관은 개인의 임대소득 탈루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아무런 변명 없이 反求諸己의 심정으로 그 죄를 물러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일들이 사회를 점점 밝게 하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다.

요사이 즐겨 시청하였던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극중에서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고’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며’ 등 11가지에 이르는 ‘남을 탓하지 말라’ 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큼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확실히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자. 그것이 진정한 ‘反求諸己’인 것을.

光復 60돌의 반성

- 한국현대사는 정권 바뀔때마다 위기의 연속 -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 금 창 태 (시사저널 사장·前 중앙일보 사장·부회장)

우리나라가 벌써 광복 60년의 길목을 돌아서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을사5조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비극적인 민족분단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여곡절과 역욕의 삶을 살아왔다.

1945년 광복, 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는 6·25를 포함한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는데 성공하였고, 열악한 빈곤의 늪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4·19혁명과 5·18광주 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의 제단에 바친 피의 대가로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데도 성공했다.

지난 60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격랑의 세월속에 감격과 보람의 날들을 되새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한과 아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펼쳐버릴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시점 많은 사람들의 느낌일 것이다.

우리는 광복60년이 되도록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라는 불명예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한심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와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해체의 위기까지 몰아갈지도 모를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분열과 파편화(破片化)의 증상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역, 계층, 세대, 이념, 집단, 성별, 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 와중에 한미갈등, 북핵위기, 이라크파병, 자유무역협정, 정치개혁, 과거사 정리문제, 교육개혁, 수도이전, 동서갈등, 남남갈등 등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들이 서로 얽혀 심각한 ‘갈등피로증’을 앓고 있다. 어느사회든 발전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그 빈도가 너무 잦고 범위가 너무크다. 양상또한 지나치게 과격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화, 타협, 양보의 자세가 아니라 처음부터 과격행동, 탈법, 밀어붙이기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든다. 폐쓰기와 물리적인 난폭행동은 강제집압이란 극단적 수단을 불려와 갈등의 증폭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은 확대재생산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고 조정하는 국가의 해결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시장이나 시민사회 스스로도 갈등의 조정과 해결에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총체적인 리더십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19세기 말로부터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당시에도 국가와 민족

의 안위와 생존을 위해 확실한 방향으로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내지 못한 지도층의 리더십 결여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다.

열강의 각축속에서 외부환경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판단을 갖지 못한 채 안으로 분열을 일삼다가 나라를 망쳐 버리고 말았다.

오늘날 한국의 정세를 보면, 19세기에 시작된 서양과의 충돌은 계속 이어져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물결속에 휘말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의 영향력은 한반도에 크게 미치고 있다. 그 양상이 조선이 망하던 시점에 비해 다르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

名士칼럼



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고 뼈아픈 반성을 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지도층의 각성과 반성은 철저해야 한다. 우리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반 국민대중은 참으로 뛰어나고 유능했던 반면에 지도자 복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대통령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그의 출생연대와 성장배경인 19세기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왕조시대의 임금같은 권위주의 행태를 보였다. 박정희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이룩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영구집권을 피하다 비극적 말로를 겪은 이승만정권의 독재에서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했다.

12.12 사태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정권은 전민화적인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전임자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잘못을 되풀이했다. 김영삼, 김대중대통령 역시 민주화투쟁의 역사에서는 이름이 빛날지 모르지만 민주적 성향을 주요 덕목으로 간주할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이들은 또 다같이 주변관리에 실패하면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손상당할 뿐 아니라 권력의 누수가 빨리 오게된다는 점을 전임정권에서 목격하고 관찰했으

면서도 제대로 교훈을 얻지못해 아들과 측근들의 비리로 도덕성의 훼손을 당해야 했다.

역사의 교훈을 배우기로 한다면 노무현정권도 사장이 참으로 절박하다. 헌정사를 통틀어 최초로 등장한 진보정권이 고 세칭 비주류가 그간의 주류세력을 제치고 집권하게된 정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해방직후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좌우대결의 악몽이 되살아났고 그때보다 더 심각한 보혁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핵무장,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군의 후진배치 등의 변수로 구한말 때보다 더 불안정한 국면을 맞고 있다. 훌륭한 지도자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해방 60년의 한국현대사는 성격과 내용이 다른 위기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어져온 위기의 역사이기도 하다.

6·25전쟁의 위기, 4·19혁명, 군부독재와 민주주의의 위기, 정세성의 위기, IMF경제위기, 도덕성의 위기가 연속되었다. 전임자나 전임정권을 일단 부정하고 나가는 정치지도자의 특성 때문에 위기관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점은 우리정치, 우리사회의 불운이었다. 과거정권이 잘한일을 배우고 승계하며 잘못된 것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지 않음으로 해서 정권마다 원점에서 재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익을 해치고 국민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보편화 되면서 지도자는 대부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다. 지도자의 자질과 사람됨을 비롯한 능력과 한계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화나 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훌륭한 지도자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

지연이나 혈연, 감성적 군중심리에 휩쓸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정치가다운 정치인을 뽑지 못하고, 자기의 영달, 일당의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치꾼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거문화, 그것은 국민인 유권자의 책임이며 그것을 바로잡는 일은 국민의 몫이다. 지도자와 더불어 국민들도 역사에서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집단적 우(愚)를 범하고 있지않은지 반성하고 뉘우쳐야 한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경우는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해방60돌 맞은 우리는 지도자로부터 전문가와 국민전체에 이르는 온사회가 여러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반성과 뉘우침이 있어야 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戰死警察官 合同慰靈祭 안내

2005년도 戰死警察官 全國合同慰靈祭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7,344위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5. 9. 27. (화) 14:00
- 장 소 : 지리산 뱀사골 충혼탑

※ 참석하시는 서울회원은 2005.9.27.(화) 08:30까지 서울역전 대우빌딩앞 집결(관광버스 대기)

2005. 9. 2.

大韓民國參戰警察有功者會 中央會
會長 文 鶴 東

다 쓴 페토너 · 잉크 카트리지 등 재활용 캠페인

수입금을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조성

—— 자연보호와 이웃사랑을 ——



〈기대효과〉

- 자연보호(토양오염방지 등)
- 자원재활용(카트리지 재사용, 알루미늄, 플라스틱, 토너가루 등)
- 외화절감(수입대체효과)
- 전·현직 경찰관 기금조성
- 불우 청소년 장학금 지원

L.J.Business

☎ 031-986-7332